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지역 명소가 된 교차로 삼지공원, 'Paterno Trivium'	뉴욕
문화·관광	5	폐 역사(驛舍) 두 곳이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파리
사회·복지	9	노숙자에게 임시숙소 대신 집을 제공하는 'Housing First' 프로그램	유타
	10	건강관련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강지도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행정·교육	12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근린지역 파트너 프로그램	오스틴
도시교통	14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도시 건설을 위한 'Vision Zero' 계획 발표	뉴욕
	16	주거지역 자동차 속도 제한 운동 확산	뉴욕
	18	시내 교통서비스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워싱턴 D.C.
	20	장애인 무료주차 조건 강화	일리노이
도시계획·주택	22	수변 음식점 영업 허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회실험 실시	도쿄
부록	27	2014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지역 명소가 된 교차로 쌈지공원, ‘Paterno Trivium’

뉴욕시 / 도시계획·주택

- 뉴욕시의 Hudson Height는 맨해튼 끝자락에 위치한 언덕으로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역임. 이 지역에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있는데, 오래 전부터 자동차들의 속도가 빠르고 교차로가 넓어 보행자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Hudson Height 지역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음.
- 뉴욕시는 최근 이 위험한 교차로 한가운데에 ‘Paterno Trivium’이라는 포켓공원(Pocket Park, 쌈지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포켓공원과 연계되어 확장된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높여주었음. 특히 교차로 인근의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함.
 - 또한 이 교차로 지역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거나 쉬거나 경치를 바라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이 포켓공원을 즐기게 되었음.
 - 포켓공원의 독특한 디자인 요소는 이러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 포켓공원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유명한 보행환경 개선 사례가 되고 있음.
- Hudson Height는 맨해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망이 좋아 다양한 인종과 세대가 어울려 사는 인기 있는 주거지역임.
 - 이곳은 1920~1930년대에 정착한 노령의 아일랜드, 독일, 이스라엘 이민자들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등지에서 새롭게 유입된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다양성을 지닌 지역임.
 -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맨해튼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싱글, 아티스트, 뮤지션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지역임.
- Paterno Trivium 포켓공원 사업은 위험한 교차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해소

하고 적절한 교류 장소를 원했던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상된 사업임.

- 포켓공원 사업 직전 이 교차로는 세 개의 메인 도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표시가 거의 지워져 있었으며, 뺑뺑이 교차로로 자동차들은 빠른 속도로 지나다녔음.
 - 이 교차로 인근에 공공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이 교차로는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부모들에게는 근심거리였음. 또한 노년의 주민들에게 이 광활한 교차로는 한 번의 신호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로였음.
 - 그런데 Thomas Navin라는 중견 건축가가 이 지역에 이사 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골칫거리인 교차로를 개선해 좀 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음.
 - Navin은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수용하여 이 교차로를 만남의 장소로, 누군가에게는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또는 아름다운 석양을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디자인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지역공동체위원회(Community Board)가 수용하게 됨.
 - 이후 뉴욕시의 교통국과 공원국이 이 지역에 대해 다른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뉴욕시는 커뮤니티 보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동의한 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Navin은 경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경관디자인 요소를 이 포켓공원에 적용하였음. 그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삼각형의 땅에 적용한 초승달 모양의 휘어진 벤치임.
- 휘어진 벤치 디자인은 이 포켓공원에서 최대 8명의 사람이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한 덕분에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여러

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일출과 일몰을 모두 즐길 수 있음.

- 이 벤치에는 팔걸이가 있어서 자리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 간격은 모르는 사람들 끼리 옆에 앉기 적당하면서, 또한 연인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음.



Paterno Trivium 포켓공원 전경. 한 무리의 노인들이 초승달 모양의 벤치에 앉아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음.



Paterno Trivium 포켓공원 준공식 모습. 좌측 남자가 이 공원을 디자인한 건축가 Thomas Navin임.

- Paterno Trivium 포켓공원 사업으로 이 지역은 안전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활발히 교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음.
- 이 포켓공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신들의 환경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학습을 하였음.

- 위험했던 교차로는 포켓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가 느려졌고 보행 환경과 안전이 개선되었으며, 보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음.
- 그러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성과는 이 포켓공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보행자들이 생겨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류를 하게 되었다는 점임.



Paterno Trivium 포켓공원 전경. 보도와 연계되는 도로의 턱을 낮춰 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이 눈에 띈.

- 결론적으로, Paterno Trivium 포켓공원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이 걷기와 조깅과 같은 건강한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도시계획적 가설을 증명한 좋은 예가 되었음.

<http://www.prentioninstitute.org>

문화·관광

폐 역사(驛舍) 두 곳이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파리市 / 문화·관광

- 파리市는 18區에 위치한 폐쇄된 기차역사 두 곳, 오르나노(Ornano)역과 생-우앙(Saint Oue)역을 시민들의 여가와 교류를 위한 장소로 쓰기 위해 현재 재생 공사를 하고 있음. 오르나노역은 ‘라 레시클레리’(La Recyclerie, ‘재활용 가게’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올 봄에 문을 열 예정이고, 생-우앙 역도 2015년 중에 개장할 예정임.
-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은 오르나노역은 본래의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한 채, 다양한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탈바꿈하는 공사 중임. 파리市는 이번 역사 재생 사업을 하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쓸모 있게 바꾼다”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오르나노역의 예전 모습을 담은 우편엽서

- 이 역사유적은 이 지역에서 “재활용 가게”라는 이름의 다목적 공간으로 새 생명을 얻을 예정임. 시민들은 이 가게에서 물건을 고치고, 자잘한 수리 작업을 하며,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상설 벼룩시장과 저녁에 열리는 동네 파티, 그

밖의 여러 즐거움을 누리게 됨.

- 문화공간 운영과 소규모 문화행사에 많은 경험을 갖춘 C-Developpement 社(<http://www.c-developpement.fr>)와 Sinny&Ooko(<http://www.sinn-yooko.com/site2>) 社가 운영에 참여해 이 버려진 역사를 다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임.
 - 역사 내의 여러 상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제공하되, 점심시간에는 “구 내식당식” 점심식사와 길거리 스낵카 스타일의 간식거리 등 저렴하고 단순한 식사가 동네 근방의 학생과 노동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제공될 예정임.
 - 역사 내 승강장에서는 매주 가구, 헌 책, 자전거, 화분 등 주제를 바꾸어 가며 동네 벼룩시장이 열릴 예정임.
 - 승강장과 연결되는 150제곱미터 크기의 대합실에는 유리벽으로 구분된 작은 상점들을 설치해 행사용으로 임대하게 되며, 행사가 없는 평시에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공간으로 쓰이게 됨.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가구들로 꾸며진 이 식당들은 대중들이 점심을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됨.
 - “르네의 아틀리에”라 이름 붙여질 수리 공방도 설치할 예정임. 이용자들은 벼룩시장에서 산 물건들, 또는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하듯이 공방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물건을 고칠 수도 있음.
- 2014년 5월 개장 예정인 ‘라 레시클레리’는 “재활용가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매달 주제가 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각종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의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편성될 것임.
- 영화의 달 : 영화 상영, 애니메이션 필름 창작교실 운영, 야외 영화 상영, DVD 교환시장 개최 등

- 소리의 달 : 리메이크 그룹 공연, 악기 만들기, LP판과 중고악기 시장 개최, 주제별 음악 관련 강의 등
- 이미지의 달 : 사진 전시, 윤리적 건축 강의,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창작교실 운영 등



‘라 레시클레리’로 다시 태어날 오레나노역의 구상도

- 파리 18區 생-우앙街에 위치한 생-우앙 옛 역사는 2015년 가을에,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인 “르 아자르 뤼디크”(Le Hasard Ludique, ‘우연한 놀이’라는 뜻)로 재탄생할 예정임. 현재, 이 역사는 빈 공간인데 2014년 9월부터 160만 유로(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
- 방음과 단열 공사가 끝나면, 이용가능한 면적은 400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1층은 250석 규모의 공연실과 주방을 갖춘 식당 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거리 쪽 건물 바깥에는 테라스를 설치해 역시 식당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임. 역사 뒤편의 승강장 사이도 크고 두꺼운 유리판으로 연결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임.



생-우앙 역사의 예전 모습을 담은 우편엽서

- 정식 개장에 앞서, 첫 행사로 생-우앙 역의 과거를 소개하는 역사사진과 예술사진을 혼합한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임.
- 본 전시회는 역 앞면과 내벽, 주변에 사진을 설치하는 방식임.
- “아자르 루디크”의 이름으로 19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주변 주민과 역사학자, 교육당국, 예술가 등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해 전무후무한 방식의 전시회를 준비할 예정임(자세한 내용은 facebook.com/LeHasardLudique 참조).



새롭게 ‘르 아자르 루디크’로 탄생할 생-우앙 역의 구상도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deux-anciennes-gares-en-cours-de-recyclage/rub_1_actu_140441_port_24329

사회·복지

노숙자에게 임시숙소 대신 집을 제공하는 ‘Housing First’

프로그램

미국 유타주 / 사회·복지

- 유타(Utah)주는 모든 노숙자들에게 임시숙소가 아닌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실시 중임. 이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노숙자가 없는 유타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노숙자들에게 장기간(혹은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노숙자와 관련된 금전적 비용 자료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계획의 실행이 의외로 쉽게 결정되었음. 즉, 일반적으로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숙소나 응급실에서의 비용이 일 년에 16,670달러(약 18백만원)가 요구되는 반면, 이들에게 아파트나 사회복지사를 제공하는 비용은 약 11,000달러(약 11백7만원)가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
 - 유타주가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주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 수를 74% 감소하였고,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였음.
 - 음식과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에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음. 오히려, 안정적으로 음식과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Housing First’ 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노숙과 일반생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그룹의 많은 노숙자들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

- 유타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00명에 이르는 노숙자를 줄일 수 있었으며, 2015년까지 노숙자들이 없는 주를 만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와이오밍주는 유타주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을 연구해 이를 적용할 예정임. 유타주와 인접한 와이오밍주는 지난 3년간 노숙자들의 수가 2배로 증가하였고, 현재 22%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있음.

<http://www.dailykos.com/story/2013/12/23/1264917/-An-Improbable-Solution-to-Homelessness-Arises-in-Utah-Provide-the-Homeless-With-Homes>

<http://www.policymic.com/articles/81507/conservative-utah-is-quietly-implementing-a-massive-progressive-policy>

<http://www.housingworks.utah.gov/documents/TEN-YEARPLAN.pdf>

<http://www.nationswell.com/one-state-track-become-first-end-homelessness-2015/>

건강관련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강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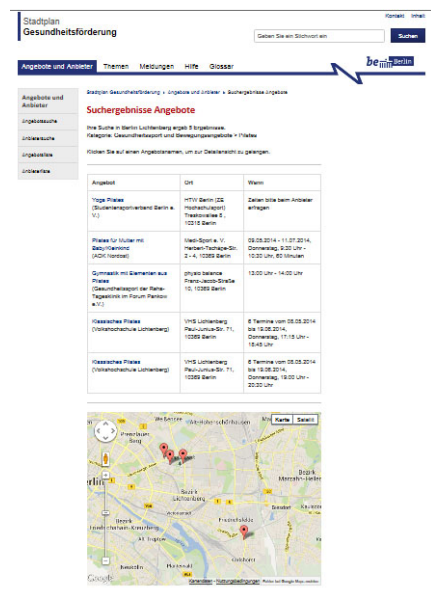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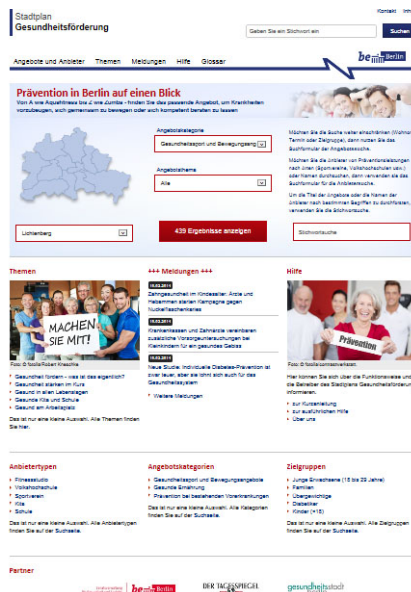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시 / 사회·복지

- 베를린시 건강사회국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지도 사이트를 최근 개설함.
- 건강지도는 나의 동네에 또는 내 직장근처에 어떤 건강서비스와 운동기회들이 있는지를 쉽게 검색하고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줌. 여기에는 건강지원기관, 건강관련 협회, 훈련기관, 건강강좌, 스포츠 프로그램, 식습관상담, 질병예방 등 7천여 개의 건강서비스가 게재되어 있음.
-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www.berlin.de/stadtplan-gesundheitsfoerderung)에서 찾고자 하는 곳을 정한 후,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검색할 수 있

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업체의 주소와 위치, 연락처, 시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 카테고리는 건강지원소,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건강교육 중심의 유치원 및 학교, 건강스포츠, 근력트레이닝, 체험 및 배우기, 질병 조기발견, 질병예방, 재활훈련, 정부지원 건강사업, 중독 탈출하기 등 12가지 범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재활훈련’ 카테고리를 지정하면 기능향상 훈련, 심장강화, 암치료 후 재활, 휠체어 스포츠, 뇌졸중 후 재활, 장애인 스포츠가 검색 선택항목으로 나옴.



건강지도 홈페이지 화면 모습

- 건강지도는 市의 다양한 건강서비스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아는 기관이나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가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만 활용하던 시민들이 더 폭넓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꼭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줌.
- 市는 이 지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시민들이 검색하는 항목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市가 시민들의 특별한 건강 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됨.

- 포털 사이트는 이밖에도 다양한 건강관련 뉴스들을 제공함. 건강사회국의 건강상담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실시간 업데이트 됨. 데이터 뱅크에 자신의 주소와 프로그램을 올리고 싶은 휘트니스 업체나 협회들은 포털에 있는 지원서류양식을 작성하여 지원하면 관리하는 건강상담사가 심사한 후 게재함.

<http://www.berlin.de/sen/gessoz/presse/archiv/20140214.1110.394417.html>

<http://www.berlin.de/stadtplan-gesundheitsfoerderung/>

행재정·교육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근린지역 파트너 프로그램

미국 오스틴市 / 행재정·교육

- 근린지역 파트너 프로그램(Neighborhood Partnering Program, NPP)은 지역발전을 위해 오스틴(Austin)市가 지역기반 조직 또는 지역공동체와 공공재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임. 근린지역 파트너 프로그램(NPP)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오스틴 지역 내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오스틴市 의회가 설계한 것으로서 주민의 아이디어와 지방재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즉, 지역공동체 구성원 또는 지역기반 조직 및 단체들은 市가 제공하는 공공재정을 사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市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근린지역 파트너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의 하위 프로그램들로 구성됨.
 - 근린지역 비용 공유 프로그램(The Neighborhood Cost Share Program,

NCSP) : NCSP는 공원 조성 및 개선, 도시미화, 자전거도로 설치 등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 발전 및 자원 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지역기반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The Grant Assistance Program, GAP) : GAP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市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지역 내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市의 재정을 공유하거나 또는 매칭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근린지역 방법 프로그램(The Neighborhood Watch Sign Program, NWSP) : NWSP는 市에 등록된 지역 방법 조직과 함께 근린지역 방법 표지판 설치, 유지, 교체 등을 할 때 방법을 위한 신호 및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주차 혜택 프로젝트 제안 프로그램(The Parking Benefit Project Proposal Program, PBPPP) : PBPPP는 시민들의 도보 공간, 자전거 도로 공간 등 이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임. 市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이 필요한 지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을 발견, 조사 및 조정하는 지역기반 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도로시설물 입양 프로그램(The Adopt-A-Median Program, AAMP) : AAMP는 도로의 중앙 분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화단이나 파이프라인 등이 매몰된 지역을 유지, 관리 및 미화하는 지역기반 조직을 승인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곧 시행될 예정임.
- 제안된 프로젝트는 지역공동체 참여, 비용 공유, 삶의 질 향상, 도시정부의 계획과의 융합, 지역의 형평성 등 근린지역 파트너 프로그램의 주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사업자금을 지원해줌.



프로젝트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 절차

<http://austintexas.gov/neighborhoodpartnering>

<http://www.austintexas.gov/content/1349/FAQ/1692>

<http://austintexas.gov/article/neighborhood-partnering-program-developing-community-heroes>

도시교통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도시 건설을 위한 ‘Vision Zero’

계획 발표

뉴욕시 / 도시교통

- 올해 새로 취임한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안전한 도시, 뉴욕을 만들기 위해 10년 이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0건으로 만드는 “Vision Zero” 계획을 최근 발표함. 이는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모든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음. 이에 따라 뉴욕 경찰의 역할 수행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Vision Zero” 계획은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특히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이러한 노력은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데 치중한 블럼버그 전 시장 시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뉴욕시는 그동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설계,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뉴욕시는 향후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과속,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도시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속도도 30miles/h (약 48km/h)에서 25 miles/h(약 40km/h)로 줄이거나 교통신호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적용할 예정임.
 - 또한, 난폭운전의 택시나 리무진에 대해서도 과속 방지를 위한 많은 대책(택시가 과속을 할 경우 요금이 오르지 않는 등)이 시행될 예정임.
 - 1,000여 곳에 이르는 교차로의 신호 밝기를 향상시켜 시인성을 높이고, 250여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자전거도로를 늘릴 예정임.
 - 도로무단횡단(jaywalking),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걷는 행위 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도로무단횡단에 대한 벌금부과도 강화할 계획임.
-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이러한 보행자 사고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Vision Zero를 발표하는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의 모습



2004년 1월 한 달간 3명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Upper west side 거리

http://www.nytimes.com/2014/02/19/nyregion/de-blasio-unveils-plans-to-eliminate-traffic-deaths.html?_r=0

주거지역 자동차 속도 제한 운동 확산

뉴욕시 / 도시교통

- 뉴욕의 법 중 가장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시정부가 거리의 자동차 속도를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임. 도시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권한이 모두 뉴욕 주의회에 있기 때문임. 그런데 근래에 들어 뉴욕시에서 보행자 교통 사고가 빈발하자, 뉴욕 주의회 의원들이 뉴욕시내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10mph까지 더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뉴욕시의회에 이양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이 법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자율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10mph까지 더 줄일 수 있게 됨.
- 현재 뉴욕시의 주거지역 자동차 제한 속도는 특별히 따로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30mph(약 48km/h)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 제한 속도는 스쿨존이나 과속방지턱과 같은 교통정온화시설(traffic-calming)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5mph 이상 줄일 수 없음.
 - 최근 자동차 속도 제한 찬성론자들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Grand Army 광장에 모여 뉴욕 주의회에 상정된 새로운 자동차 속도 제한 법안을 지지하는 시위를 가졌음. 이 시위대는 자동차 속도 허용은 20mph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동차 속도 제한 법안을 지지하는 시위 모습

-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줄일수록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승용차 속도가 20mph 이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숨질 확률은 단지 5%인 것으로 나타남.
- 뉴욕시는 운전자들이 얼마의 속도로 주행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뉴욕 시립 학교 인근에 6개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음. 6개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제한 속도보다 10mph 이상 과속한 승용차를 제재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는데 지난 2주간 약 900건의 단속건수가 발생하였음. Staten Island 고등학교 인근의 경우에는 약 97%의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많은 유럽 국가가 도심지역에서 20mph (30kph) 이하의 속도제한을 두고 있지만 뉴욕시의 경우 뉴욕주의 법에 따라 여전히 30mph를 고수하고 있음. 뉴욕의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가 여전히 통행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뉴욕 주의원들이 도심 내 속도 규제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음.
- 하지만 최근 선출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10년 이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0건으로 만드는 "Vision Zero"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속도 제한을 강력히 추진 중임.

- 속도 제한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은 이번에는 뉴욕市, 시의회, 뉴욕市 교통국과의 유례없는 협업을 통해 도심 내 속도 규제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음.
- 이번 법안 추진위원장인 Keegan Stephan은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합심하여 뉴욕市의 승용차 속도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회이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반대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2/new-york-fights-set-its-own-speed-limits/8277/>

시내 교통서비스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미국 워싱턴 D.C. / 도시교통

- 대다수 도시에서 이미 교통서비스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Ride Scout은 모든 교통서비스 정보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함. 원하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대중교통, 택시, 카풀, 자전거, 도보, 승용차 등 모든 교통수단이 포함된 통행정보를 통행시간, 통행수단, 통행비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 워싱턴 D.C.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2013년 11월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버스정류장에서 언제, 어떤 버스가 도착하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Capital Bikeshare 자전거 대여소에 몇 개의 자전거가 남아 있는지 등도 알 수 있게 되었음.

	Est. Cost	Depart	Arrive
HAIL	\$8.42		book now
Car	\$0.96	8:13AM	8:20AM
Bike	40 cal	8:13AM	8:22AM
cb	\$7/24hr	8:14AM	8:23AM
CAR 2GO	\$2.32	8:17AM	8:23AM
CAR 2GO	\$2.46	8:18AM	8:24AM
M metro	\$1.60	8:16AM	8:32AM
Bus			

RideScout 어플리케이션 화면 모습

- 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워싱턴 D.C.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교통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RideScout의 어플리케이션은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는 워싱턴 D.C.와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음. 향후에는 미국 내 모든 도시에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근 증가된 관심을 바탕으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에 택시 및 카셰어링 차량 정보까지도 한꺼번에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http://www.theatlanticcities.com/technology/2014/02/super-useful-app-wants-change-how-we-move-th-rough-cities/8274/>

장애인 무료주차 조건 강화

미국 일리노이주 / 도시교통

- 장애인을 위한 무료주차제도를 비판하는 이유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 첫째, 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료주차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 둘째, 무제한 무료주차는 자동차 사용을 장려해 도심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짐. 셋째,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무료주차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 즉 장애인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이러한 장애인 무료주차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리노이(Illinois)주는 모든 장애인 주차가 무료여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2014년 1월부터 좀 더 강화된 조건을 통과한 일부의 장애인 등록차량만이 유료시설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정책은 무료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차량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닌 일부의 장애인 등록차량만이 유료시설의 주차공간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따라서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 등록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무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차량이 무료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 혹은 장애인 차량 번호판(Disabled Person License Plates)을 발급받아야 함.
- 이러한 장애인 무료 플래카드 혹은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사(licensed physician) 혹은 의사 보조원(physician assistant), 숙련된 실무 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로부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영구적으로 나타남을 입증받아야 함. 지금까지 이용되어 왔던 기준인 “누구의 도움이나 휴식 없이 200 피트의 도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함.

- 폐질환으로 강제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FEV)이 1리터 이하를 기준으로 1초인 경우
 - 휴대용 호흡기를 필수로 소지해야 되는 경우
 - 미국심장학회 기준으로 클래스 3 혹은 클래스 4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타인의 도움, 보철이나 의치의 도움, 휠체어 등 보조 수단 없이 보도가 불가능한 경우
 - 관절염, 신경질환, 기형으로 도보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리나 팔 중 하나를 손실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 차량 번호판의 경우 처음 차량을 등록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장애인이 이동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가족 명의의 차량이 신청 가능함.
-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는 무료 주차 이용 시 반드시 룸미러에 걸어야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함.
- 영구 사용용(Permanent) : 이 플래카드는 파란색이며 매 4년마다 갱신해야 함. 영구 장애인의 경우 이 플래카드를 소유해야 함.
 - 한시 사용용(Temporary) : 이 플래카드는 밝은 붉은 색이며 의사의 요구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무료 주차를 위해 사용 가능함.
 - 기관 사용용(Organizational) : 이 플래카드는 녹색이며 장애인을 운송하는 조직에서 4년간 사용 가능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변경된 이번 정책이 적용되었으며, 시카고시는 약 2주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실시함.

- 작년 시카고市 경찰국은 장애인 무료주차 차량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16%~18%의 차량이 불법으로 장애인 무료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음.
- 시카고市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무제한 무료주차에 대한 오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1/why-chicago-dramatically-rolling-back-free-parking-disabled/8129/>

<http://www.dmv.org/il-illinois/disabled-drivers.php>

도시계획·주택

수변 음식점 영업 허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회실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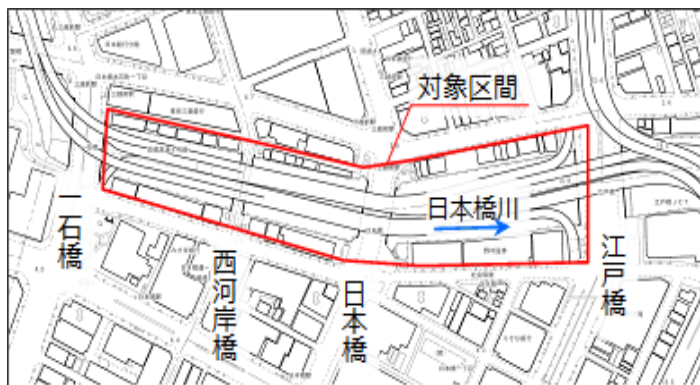
도쿄都 / 도시계획·주택

- 도쿄都 건설국은 2013년부터 수변 공간의 매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의 관리용 통로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와테라스(かわてらす)” 사회실험을 실시함.
- 사람들이 많이 모여 활기 넘치는 수변 공간을 창출하고, 하천부지를 주변의 토지이용과 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1년에 일본 정부에서 정하는 하천부지점용허가준칙(이하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 부지의 점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음식점 및 수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 “가와테라스”는 가와유카(川床, かわゆか)라고 부르는 식음을 위해 하천에 돌출하여 설치한 고상식(高床式) 공작물의 도쿄식 명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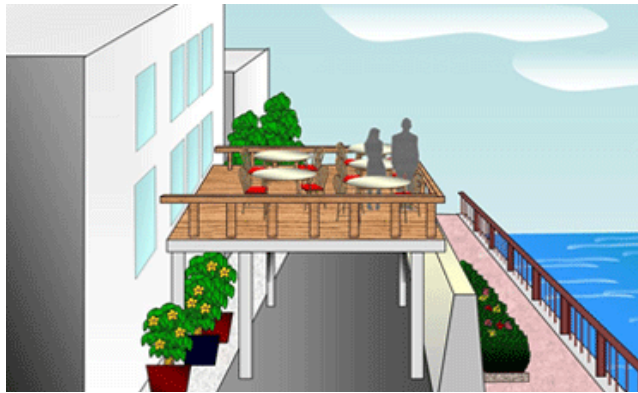
- “가와테라스” 사회 실험은 이 준칙에 의한 점용특례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한정된 기간 동안 가와테라스를 설치하고, 사업자에 의한 유지관리, 안전 확보,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임.
- 도쿄都는 2013년 7월부터 스미다강의 가와테라스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는 니혼바시강의 니혼바시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을 개시하였음.
- 사회실험 실시 기간은 스미다강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이며, 니혼바시강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 이번 사회 실험에서는 기간 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수변의 식음 공간을 정비하고, 都에서는 하천부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를 기간 한정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협력방식으로 진행됨.
- 도쿄都에서는 수변 공간 및 테라스 이용 촉진을 위한 공간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일시점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 적용됨.
- 사업자는 사업에 앞서 지역사회와의 조정 및 동의를 필요로 하며, 사회 실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가와테라스의 설치, 철거, 유지관리, 강변의 매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하천부지의 일시점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하천부지의 일시점용비는 스미다강의 경우 연간 제곱미터 당 5,238엔(약 5만 2천원), 니혼바시의 경우 연간 제곱미터 당 13,948엔(약 14만원)임.
- 가와테라스의 설치 및 영업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조정, 계획 및 설계협의, 협정서 체결, 일시점용허가 신청의 단계를 거쳐야 함.
- 지역사회와의 조정 : 가와테라스 설치에 관한 관계자의 조정을 의미하며, 건물

및 토지소유자, 지역자치회,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후 동의를 얻는 단계를 거쳐야 함. 조정 내용에는 가와테라스의 설치 위치, 크기, 영업 시간 및 기간,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책, 지역공헌대책 등이 포함됨.

- 지역공헌대책은 청소, 녹화, 쓰레기 처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을 의미함.
- 구체적인 지역공헌대책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니혼바시의 경우 도쿄都, 중앙區, 지역 단체 등과의 조정을 통해 정함.
- 계획 및 설계 협의 : 사업자는 점용허가 상의 조건, 구조 관련 조건, 부속설비에 관한 조건을 고려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도쿄都 건설국 하천부와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 이를 위해 건설국과의 사전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합의한 설치조건, 영업조건, 지역방책 등을 건설국에 제시해야 함.
- 협정서 체결 : 협정서는 사업자와 건설국 하천부 간에 체결함.
- 이후 일시점용허가신청 후시설의 설치 및 영업을 개시함.



니혼바시강 대상구역(출처 : 도쿄도청 홈페이지)



가와테라스 설치 이미지(출처 : 도쿄도청 홈페이지)



스미다강 대상구역(출처 : 도쿄도청 홈페이지)

<http://www.kensetsu.metro.tokyo.jp/kasen/kawaterasu/>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07/22n72200.htm>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4/02/22o25100.htm>

http://www.kensetsu.metro.tokyo.jp/kasen/kawaterasu/asakusa/asakusa_youkou.pdf

http://www.kensetsu.metro.tokyo.jp/kasen/kawaterasu/nihonbashi/nihonbashi_youkou.pdf

2014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뉴욕市 /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29
샌프란시스코市 / 에드윈 리(Edwin Lee) 시장	30
휴스턴市 / 애니스 파커(Annise Parker) 시장	33
런던市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	34
파리市 / 베르트랑 델라노(Bertrand Delanoe) 시장	35
리옹市 / 제라르 콜롱(Gerard Collomb) 시장	36
베를린市/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시장 ...	39
뮌헨市 / 크리스티안 우데(Christian Ude) 시장	41
쾰른市 / 위르겐 로터스(Jürgen Roters) 시장	44
오사카市 / 하시모토 토오루(橋下 徹) 시장	46

뉴욕市 /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 2007년 시작된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와 도시 전체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그럼에도 뉴욕시의 46%가 여전히 저소득층 특히 빈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뉴욕시 중산층을 압박할 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의 위기요소가 되고 있음. 따라서 올해는 특별히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인종과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부문에 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높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부문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강화시킬 것임.
 - 향후 8년 안에 뉴욕시 내 주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관련 주요 기술 교육 전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회사들의 성장이 아니라 뉴욕 시민들이 일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할 것임.
 - 특히 의료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각 기술계층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시립대와 고등학교에서 관련 기술 및 내용을 습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대학졸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업을 갖기 전, 혹은 실직 이후에 그린 잡(친환경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종일반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할 것임.
-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2015,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것임.
- 실업을 감소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창업지원을 지속할 것임. 단 경쟁력 있는 산업과 반드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을 구분하여 지원할 것임. 또한 주정

부 지원으로 시간당 최소 인건비를 인상할 것임.

-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며, 사고 시 응급 상황 대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구급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교육도 강화할 예정임. 특히 기상 악화로 인한 도시 교통 마비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임.
- 이민자가 많고 다양한 소득계층과 인종이 섞여 사는 뉴욕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충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협력하여 지역단위별로 치안문제를 개선할 계획임.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45-14/state-the-city-remarks-mayor-de-blasio-prepared-delivery#/0>

샌프란시스코市 / 에드윈 리(Edwin Lee) 시장

- 샌프란시스코市는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 본 시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대비 도시 실업률이 4.3% 이상 개선되었으며, 2011년 대비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음.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그리고 주택, 교통, 교육 분야의 개선이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둘 계획임.
- 경제 및 일자리 분야
 - 2014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ADA Assistance Program”, “Revolving Loan Programs”, “Jobs Squad”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근린주구 단위마다 상업지역에 무료 Wi-Fi를 확충하고, 여름철 공공 및 민간 영역에 6,8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임. 또한 현재 NPO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립대학교의 커리큘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안전 및 범죄 예방 분야

- 2년 전 수립한 예방, 예측, 대처 전략(IPO Strategy) 이후로 전년대비 강력범죄가 30% 이상 감소하였고, 지난 40년 간 범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올해에도 911 관련 전문 인력들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10개년 도시개발 계획 중의 하나로 지진안전성 응급대응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재산세 인상 없이 이를 달성하고자 함.
- 샌프란시스코 버전의 로라법(싸이코패스의 강력범죄 피해자인 로라 이름으로 지어진 법. 당시 싸이코패스형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 도시정부 예산으로 이를 시행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정신질환자 특히 홈리스 중 대상자들을 집중 관리할 계획임.

- 주택 분야

- 샌프란시스코市는 현재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2020년도를 목표로 30,000개 이상의 주택을 신규 및 재건축하여 확보하고, 1/3 이상은 영구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으로 조성하기로 함.
- 특히 ① 엘리스법(주택 및 기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한 자산 매각이 허용되는 법으로 샌프란시스코市에서는 자주 임대주택의 소유주가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함)개정을 포함하여 세입자가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② 경제적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세입자를 최대한 고려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것, ③ 도시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를 철저히 할 것, ④ 담보대출프로그램을 두배로 늘려 중산층 시민들이 자가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⑤ 저렴 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투자자, 개발자들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줄 것, ⑥ 시장에 내놓을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것, ⑦ 신규 주택 건설자들을 지원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정부 담당 직원들을 추가 배치할 것 등 7개 중점 주택계획 방향을 설정함.

- 교통 분야

- 2013년도 수립한 “도시교통계획 2030”을 바탕으로 교통부문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 것이며, 특히 대중교통부문의 개선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2014년부터는 추가적인 교통계획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대중교통서비스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향후 2년 안에 이를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임.

- 교육분야

-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립학교들의 커리큘럼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 도시들이 노력하고 있음. 샌프란시스코市도 시장이 직접 “중학교 리더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성과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부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현재市 예산확보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립학교 교육에 추가예산을 배치할 계획임.

<http://sanfrancisco.cbslocal.com/2014/01/17/san-francisco-mayor-ed-lee-to-unveil-housing-plan-at-state-of-the-city-address/>

http://www5.sfgov.org/sf_news/2014/01/mayors-agenda-mayor-outlines-2014-agenda-in-state-of-the-city-address.html

휴스턴市 / 애니스 파커(Annise Parker) 시장

- 시의회는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 등을 수렴함으로써 의제를 설정하고, 시장은 도시의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공무원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휴스턴의 번영을 위해 정책을 집행함. 휴스턴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진 도시로 市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임. 그러므로 시민들이 휴스턴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여가, 고용, 해방, 동지애 등 도시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람.
- 휴스턴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임. 시민은 휴스턴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는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성은 혼동을 유발하는 한편, 풍부함과 번영을 유도하기도 함. 따라서 다양한 휴스턴 시민들이 전심으로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비차별 조례를 통과시켜야 함.
- 휴스턴은 역동적이며 에너지와 꿈이 있는 도시임. 수출, 우주과학 및 재난관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실용적인 휴스턴 방식으로 미래의 도전들을 헤쳐 나갈 것임. 휴스턴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경제 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휴스턴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함께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변지역의 재난을 대처하고 예방해야 함.
- 휴스턴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임. 세계에서 3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휴스턴市의 GDP는 조지아州보다 높음. 그러나 경제적 혜택이 휴스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님. 2년 전부터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지금부터 향후 2년은 이 지역의 만성적인 빈곤층 및 빈곤지역을 없애기 위한 적기임.
- 시민 여러분의 기도와 인내, 그리고 끈기를 요청함. 시민 여러분이 특별함을 더한다면 일상적인 것도 특별한 것이 될 것임.

<http://www.houstontx.gov/mayor/inauguration2014.html>

런던市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

- 현재 영국의 경제가 전 분야에 걸쳐 회복세에 있으며 특히 런던市는 지난해에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영국 전체 GDP에서 25%를 차지하는 등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임. 201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 런던의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도시철도인 ‘크로스레일’의 건설공정이 절반 이상 진행되었고, 지하철 지연율이 40% 감소되었음. 기존 노선 연장 계획 등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범죄율은 최근 2년간 11% 감소하였고, 대기오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화재발생률이 지난 10년에 비해 64% 감소하였음.
- 주택 분야를 보면, 현재 런던市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런던플랜’에 5개의 새로운 기회지역을 지정하고 고속철도 및 광역도시철도와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10만호의 저렴한주택(Affordable Homes)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함. 이를 위해 범죄율을 낮추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 주력할 것임.
-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런던 북동쪽 리벨리 지역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남쪽 벅슬리 지역의 주요 도로를 확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이와 더불어 광역도시철도 수혜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그밖에 런던 동부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예정이며, 올림픽 부지 내에 대학 및 기업을 유치하여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임. 또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함. 마지막으로, 범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3만 2천명의 경찰 인력을 유지하고,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6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파리市 / 베르트랑 델라노(Bertrand Delanoe) 시장

- 2014년도에도 파리市는 시민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파리를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파리市는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진화하고 있음.
 - 2014년에도 상당한 수의 주거 및 육아시설이 늘어날 것임. 사회적 주택이 7,500호 추가 건설되고, 어린이집도 1,1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늘어날 것임.
 - 파리 12區 샤를레-로통드(Charolais-Rotonde)에 신규로 건축되는 사회적 주택단지에 어린이집 1곳과 음악전문학교가 신설되고, 19구에는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과 마틴 루터 킹 공원이 확장되면서 62헥타르에 달하는 긴 선형의 녹지가 형성될 것임.
 - 그 외에 문화센터 5곳과 체육관 1곳, 체육센터 3곳, 수영장 1곳, 도서관 1곳 등이 신설되며, 10개의 학교가 신축되거나 개·보수될 것임.
- 외곽순환도로를 안전하고 오염이 적은 도로로 만들 것임.
 - 2014년 1월 10일부터 파리외곽순환도로의 최대주행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에서 시속 7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되었음. 이 조치로 인해 외곽순환도로 주변 10만 주민에게는 상당한 소음공해 저감 효과를, 그리고 5% 이상의 파리市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23%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유럽 제1의 혁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임.
 - 2014년 부시코(Boucicaut) 벤처센터가 문을 열면서, 파리는 총 10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신생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 파리 시민이 경제발전의 꿈

을 가지고 계속 이 역동적인 기운을 지켜가길 바람.

- 파리 시민들이 노력한 덕분에 파리는 유럽 제1의 혁신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경쟁력과 활기 있는 5개 도시 안에 들 수 있었음. 이것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평가임.
- 시민이 파리市의 주인임.
 - 파리의 역동성은 파리 인구의 변동에서도 나타남. 파리의 인구는 11년간 12만 4천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13년간 8만 2천개의 기업이 창업되었음.
 - 시민이 파리市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임. 다가오는 3월에 치러질 파리 시장과 시의회 선거 투표에 파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 파리市는 2014년에도 8월의 파리市 해방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예정이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 그 의미를 되새길 것임.
- 마지막 세 번째 시장임기를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실수를 한 적도 있지만 우리는 충실했다”는 것임. 충실함이란 어떤 것을 시민과 함께 성실히 해내는 정신이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파리市의 가치에 우리는 충실했다는 것임.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retrouvez-les-voeux-du-maire-aux-elus-du-conseil-de-paris/rub_1_actu_139419_port_24329

리옹市 / 제라르 콜롱(Gerard Collomb) 시장

- 지난해에 이어 2014년 역시 경제위기로 상황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됨. 올해에

는 프랑스 국가부채가 20조 2천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이 부채를 갚는 일 때문에 경제 활성화나 고등교육과 문화 부문에 투자할 금액이 줄어들고 있음. 국가 부채뿐 아니라, 프랑스 경제 자체의 총체적 불황도 문제임. 기업 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프랑스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세계화와, 혁신과 창의성에 있음.

- 오늘날 우리는 세계경제 체제 안에 살고 있으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하고, 유럽이 다시 세계경제의 주류가 되도록 힘써야 함.

- 세계화는 위협만이 아니며 잘 이용만 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이 기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의지 속에 있으며, 도전하고 혁신하며 발명할 줄 안다면 반드시 붙잡을 수 있음.
-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함. 첫째는 우리가 모두 하나의 똑같은 세계에 산다는 것임. 이 사실을 직시하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자리를 잡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가 취할 행동을 알 수 있음. 둘째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임. 과학과 기술, 경제, 사회 영역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들은 침체하거나 퇴보할 뿐임.

- 리옹市는 이러한 자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으며,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고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리옹은 경제발전의 속도나 사회분배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도시계획 등에서 프랑스의 많은 광역시들이 부러워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음.

- 이제 리옹은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도시가 되었음. 예를 들어, 일본의 Nedo(국립 新에너지국)는 리옹과 협약을 맺고 공단지역을 친환경거리로 재생한 콩플루앙스(Confluence)를 스마트시티 기술 이전 파트너로 선택하였음. 또한, 리옹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리옹 빛축제”에 중국과 두바이가 비용을 대고 리옹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자국을 홍보하는 조명행사를 열었음.
- 이러한 성공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았음. 시민, 市가 온 힘을 다해 세계 최정상

급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고, 기상변화나 수질오염, 대기오염과 같은 힘든 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 리옹의 기업들도 리옹이 미래의 주요 디지털 도시가 되는 데 일조하고 있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동하기 편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가 되도록, 스마트 시티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음.
- 혁신이란 학문의 힘을 빌려야 함. 그 점에서 리옹의 대학들과 市 당국은 매우 수준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리옹의 대학들은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 공모에서 자주 선정되곤 함. 혁신이란 바로 기술에서 나옴. 대학 연구자들의 새로운 발명을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고 또한 친환경적이어야 함.
- 경제 혁신 : 리옹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특별한 협력 모델이 있음. 신뢰에 기반한 관계이며, 이것이 바로 리옹市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도시들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임. 바로 이 협력 모델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길 바람.
- 사회 혁신 : 1980년대에 땡구에트(Minguettes) 단지에서 일어난 폭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빈곤 지역에서 주민 폭동이 일어남.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개입을 통해 많이 안정되었음. 부유층 지역과 빈곤 지역의 극단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계층 간 혼합주거를 유도한 결과, 빈곤화되고 쇠퇴한 지역이 급격히 줄어들었음. 이제는 나흘 밤 동안 열리는 “리옹 빛축제”만 해도 300만명이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음. 이것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한 결과이며, 이것이 도시와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었음. 이것이 리옹의 특별함이고 자랑임.
- 리옹에는 리옹식의 인본주의 전통이 있음. 리옹市의 모든 시정 목표는 인간이며, 기업이나 경제는 시민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임. 리옹광역시와 시의회는 리옹을 한층 더 인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임.

- 리옹市는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Saône 유역 정비와 공원 및 도서관 건설, 어린이집 확충, 시립 수영장 개선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음. 올해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영아 및 어린이 교육으로 1억 4100만 유로가 투입되며, 문화 부문에 1억 1300만 유로, 사회적 약자층 연대사업에 4천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 리옹시의 아름다움은 단지 건축물의 아름다움만이 아님. 리옹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풍경도 도시의 아름다움을 결정함. 노약층이나 어린이를 배려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요청됨.
- 활력 있는 경제와 함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도시, 그것이 바로 리옹의 아름다움임.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고, 훈훈하게 외부인을 환영할 줄 아는 도시, 그것이 리옹의 분위기이며 매력임.

<http://www.gerardcollomb.fr/2014/01/07/voeux-aux-corps-constitues-pour-2014>

<http://www.lyon.fr/page/vie-municipale/budget-2014/connaitre-et-comprendre-le-budget-de-la-ville.html>

베를린市/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시장

- 우리는 지난해 유래 없는 경기호황을 누렸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이러한 경기호황은 2014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도시성장을 말해주는 것은 경제지표만이 아님. 베를린은 지난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임. 市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했고 이주해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음. 베를린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 인구 덕분이기도 함.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과 문화와 과학 발전은 그들을 통해 확대됨. 인구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市는 더 다채롭고 재미있어짐. 도처에 새로운 주거공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무실과 사업장이 문을 엿. 이 때문에 베를린은 타 지역과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과 호감을 얻는 도시가 됨.

- 2014년 가을에는 평화혁명을 통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이하게 됨. 이를 계기로 세계의 관심은 다시 한번 베를린으로 쏠리게 될 것임. 그 관심은 단지 역사적 의미 때문만은 아님. 사람들은 베를린이 그 역사적 계기로부터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발전시켰는지 질문할 것임. 그동안 베를린은 통일만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갖춘 대도시로 발전하였음. 세계로 향해 열어놓은 개방성이 오늘의 베를린을 있게 한 원동력임.
- 2014년에 市는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임. 도시는 변화해왔고 계속 변화할 것임.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까 염려도 있음. 올해 市는 지금의 경제성장을 각 개인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모든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임. 장기 실업자들도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할 것임 .
- 베를린은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인간적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시민들의 포용적인 태도임. 베를린의 특징은 인구구성의 특수한 혼합에 있음.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곳, 이러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결속임. 선입견을 통해 타자와 소수그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작은 관용의 제스처를 통해 포용하는 시민적 자세가 필요함. 인간적이고 살만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림.
 -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함. 그분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서 베를린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 베를린이 더욱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시민들의 자원봉사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3/pressemitteilung.59835.php>

뮌헨市 / 크리스티앙 우데(Christian Ude) 시장

- 뮌헨市의 2014년 주요 어젠다(Agenda) 중의 하나는 주택건설임. 뮌헨은 경제의 호황으로 일터와 주거지로서 매력적인 도시임에 분명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주택 문제라는 또 다른 과제가 존재함. 도시 발전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여 주택 임대료와 부동산값이 상승하였음. 따라서 주민들에게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뮌헨市는 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그동안 뮌헨 지역에는 주택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본 시장의 임기 동안(우데 시장은 4선 시장으로서 1993년부터 20년 동안 시장으로 재직하였음) 총 11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적정가격의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 지난해 시의회는 프린츠-오이겐 군기지터(Prinz-Eugen Kaserne), 림(Riem) 동부 및 슈바빙(Schwabing)의 세 군데 시범사업을 포함한 임대주택건설 모델 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음. 이 사업의 골자는 사유지를 최고가 경매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자로 하여금 市의 조건(예컨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할 것)을 이행하게 하는 것임.
 - 위의 시범지구 외에도 많은 지역들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市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새해에도 많은 신규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임.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계획은 신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프라이함(Freiham) 지역에 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의 190헥타르 면적의 부지에 30년 동안 20,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 확보에는 연방軍의 옛 부지들이 도움이 되고 있음. 프라이만(Freimann)의 구 바이에른 군기지터에는 약 4,000 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올해에 약 48헥타르의 부지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임. 보겐하우젠(Bogenhausen)에 위치한 프린츠-오이겐의 기지터 역시 이용할 예정이며, 이곳에는 약 1,8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가 조성될 것임. 이밖에

도 프라이함의 옛 무선통신대 기지터에서도 1,250가구에서 최대 1,600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택부지를 조달할 예정임. 이러한 부지들에는 근로자 및 학생 기숙사 역시 조성할 계획임.

- 박람회의 도시인 림에도 역시 택지가 조성됨. 이미 이전의 3단계 건설을 통해 4,500채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4단계 계획이 완료되면 그 수는 5,800채로 늘어날 것임.
 - 뮌헨 중앙역과 파징(Pasing) 사이의 철도 선로를 따라 조성되는 뮌헨 중심지 주택 건설 역시 새해에는 거의 완공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곳의 6개 지구 중 유일하게 개발이 끝나지 않은 파울-게하르트街(Paul-Gerhardt-Allee)의 건축 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200 가구를 수용할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임.
 - 파울라너(Paulaner) 맥주회사가 이전함에 따라 파울라너 맥주공장터 역시 택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 부지에는 1,400 가구를 수용할 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이 건축계획은 올 가을 통과될 전망이다.
 -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유허지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공급 가능한 기존 주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이른바 ‘유지조례’가 제정되었음. 이 조례의 목적은 사치스러운 리모델링과 그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임. 市는 이 조례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2014년 주요 어젠다(Agenda)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진흥임. “독일 극장”이 지난 5년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됨에 따라, 새해를 맞는 뮌헨市의 문화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뮌헨市는 올해에도 뮌헨의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2014년 1월 19일, 독일극장의 개관식을 통하여 새로 조성된 뮤지컬무대와 무대장치 의 뒷면이 공개되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가이드 투어가 제공되었음. 25일에는 “독일 극장”이 전통 무도회장으로 변모하여, 16건의 무도회 행사가 열렸음.

- 3월부터 이곳에서는 레너드 번슈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재개관 첫 작품으로 공연될 예정임. “독일 극장”은 재개관과 더불어 극장의 과거 명성을 더욱 빛내 줄 다양하고 인상 깊은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음.
- 지난해에 리모델링 후 재개관한 렌바흐하우스(Lenbachhaus) 미술관 역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뮌헨 시립박물관은 이미 지난 2008년 부분 리모델링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대규모 2차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공모를 할 예정임.
 - 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가을까지 시립박물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의회가 할 예정임.
- 오는 11월에는 쾨니히스 광장(Königsplatz)에 NS-기록물센터 건립이 완료될 예정임. 이 보관소는 바이에른의 수도로서 뮌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것임.
 - 흰색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모양의 건축물은 전시장과 교육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임. 배움과 추억을 위한 장소로서 이 기록물센터는 역사와 현재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한편 그것이 “오늘날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줄 것임.
- 뮌헨 시립도서관 역시 이번 해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임. 新 시립도서관은 기존보다 두 배 가량 넓어진 약 520㎡의 도서대여관을 갖추고 있음.
 - 기징(Giesing) 지역에서도 대형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이 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미디어 공급소의 역할 또한 수행할 것임.
 - 라임(Laim) 지역에도 새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들 신규 도서관들과 기존 도서관들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 본 시장은 극우적인 사조에 대한 반발로서 뮌헨의 30여 개의 극장, 악단, 박물관, 교

육시설, 그리고 예술가들이 “존중을 위한 예술과 문화”를 기치로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기쁘게 생각함.

- 그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뮌헨의 문화예술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으며, 뮌헨의 문화계에는 인종차별주의, 극우주의 및 포퓰리즘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finfos/OB-Kolumnen/2014/KW-01.html>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finfos/OB-Kolumnen/2014/KW-02.html>

쾰른市 / 위르겐 로터스(Jürgen Roters) 시장

- 2013년은 큰 발전을 이룬 해였고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2014년을 낙관적으로 바라봄. 쾰른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고 일할 곳이 많은 도시임, 이것은 유래 없는 인구증가와 일자리 수가 말해 줌.
- 지난해 많은 새로운 기업이 이주해오고 문을 열었으며,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음. 이에 따라 2014년에 市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족과 직업의 병행성을 강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해 市는 3세 이하 아기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에 전일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또한 쾰른市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임. 이를 위해 올해 100개의 놀이터를 새로 건립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결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도록 할 것임. 그래서 세입보다 많은 지출은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절약 조치를 통해 과제들을 추진할 것임.

- 市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계속 책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임. 특히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임. 2014년에 市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3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교통분야

- 현재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건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활력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임.
- 市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공사현장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할 것임. 이러한 공사현장과 재개발계획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고 조정해 나갈 것임.
- 나아가 다양한 교통수단들, 즉 철도, 버스, 자전거가 지금보다 더 잘 연계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주택분야

-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반가운 일임.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市는 올해 보육시설부터 학교, 새로운 주택건설까지 많은 새로운 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임.
- 무엇보다 주택(임대) 가격의 안정화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임.

- 도시의 이미지 분야

- 웰튼市는 좀더 깨끗해져야 함. 시내의 불결한 지점들은 아직도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도시의 이미지도 추락시킴. 웰튼다운 고유한 활력이나 매력적인 카오스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함.
- 시민 모두가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램. 이미 많은 지역에서처럼 자원봉사를 통해 적극 참여해주기를 부탁함.
- 도시의 좋은 이미지는 대규모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들어짐. 예를 들

면 우리 박물관들은 유명세를 타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특히 2014년 여름에는 쾰른의 유명한 역사적 정원인 플로라(Flora)가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15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장함. 또한 오페라 하우스와 샤우슈필 하우스의 개조공사도 올해 마칠 예정임.

- 시민 모두가 함께 쾰른의 미래를 생각해 주길 바람.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함.

<http://www.stadt-koeln.de/1/presseservice/mitteilungen/2013/09006/>

http://www.stadt-koeln.de/mediaasset/content/pdf-ob/reden/20140101_neujahrsansprache.pdf

오사카市 / 하시모토 토오루(橋下 徹) 시장

- 시장 취임 이후 현역 세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 활력을 고령자에게 환원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육아지원 시책 및 교육 시책에 중점을 두어왔음. 지난해 11區에서 대기아동 제로를 달성했으므로 올해는 전 區에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교육 시책에 있어서도 영어 교육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력 향상, ICT 활용 등 교육 환경의 충실에 더욱 주력할 계획임. 또한 여성 관련 분야에서도 더욱 활약하도록 하겠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겠음.
- 오사카는 ‘사람’의 힘으로 발전해온 도시임. 오사카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활동하기 쉬운 필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대담한 규제완화와 세제 조치가 필수임.
 - 지난해 국가 전략 특구에 대한 제안이나 부도심 규제개혁회의 설치 등을 통해, 지금까지 관이 담당해온 분야의 민간 개방을 도모해 왔음. 아울러, 오사카府 및 오사카市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구 진출기업 지방세 최대 제로”의 특례 조

치도 꾸준히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의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작년 봄에는 우메키타에 그랑프론트 오사카가, 올 봄에는 아베노하루카스가 전면 개업 하는 등, 오사카가 이제 시민의 힘으로 크게 움직이기 시작함. 지난해에는 시민의 관점에서 관광 진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사카 관광청도 설립하였음. 또한 2015년에 오사카성 마을만들기 400년이나, 텐노지 동물원 100주년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의 해를 맞이하므로 올해는 2015년을 향해 박차를 가할 1년으로 삼고, 새로운 도시의 매력 창출을 위해 관민이 일체가 되어 노력함으로써 오사카를 물과 빛의 매력으로 더욱 활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시민 여러분에게 친밀한 공모(公募)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개성 넘치는 구청 운영을 실시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교육 행정 및 육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지역 활동 협의 모임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형성되고, "Near is Better"를 실천하고 있음. 올해는 區와 국(局)과의 연계 체제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구청장과 구청장 회의가 책임을 가지고 정책과 개혁을 실행하도록 부회의 결정권과 책임을 강화해 가겠음.
 - 또한 시민 생활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치매 노인과 발달 장애인 지원 등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계속 하면서, 남해 거대 지진 대책을 비롯해 방재 및 감재 대책을 각 區의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어려운 재정 상황 아래에서도 방재 및 감재 대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톡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산 관리 개혁으로 자산의 재편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성장은 광역 행정, 안심은 기초 자치 행정"이라는 역할 분담 하에 실시하고, 오사카의 성장, 시민 생활의 향상, 안정된 재정 기반을 장래에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도시 제도를 마련하겠음.
 - 지난해에는 오사카市 도시 관리국의 설치 및 오사카府 및 오사카 특별행정구

설치 협의회에 관한 역할, 사무 분담 및 재정 조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하였으므로, 올해는 협정서 초안 작성, 주민 투표를 거쳐 새로운 대도시 제도를 실행하는 중요한 시기임.

- 시민 여러분이 새 제도의 장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247248.html>